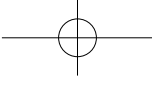


법무사 학습전략

Learning Guide Book



D1

법무사 시험준비 Know-how

■ 1차시험(객관식)

법무사시험의 1차시험 합격을 위해 전략과목과 취약과목을 잘 분별하여 개인에 맞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차시험 과목이 총 8과목으로 1과목 헌법(20문), 상법(30문), 2과목 민법(40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10문), 3과목 민사집행법(35문), 상업등기법 및 비승사건절차법(15문), 4과목 부동산등기법(30문), 공탁법(20문)이다. 1차 시험의 합격자 기준은 각과목 과락 없이(40점) 2차 합격자의(120명) 3배수인 360명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2015년 기준)

법무사시험 과목중 제일 중요한 과목은 민법을 꼽을 수 있다. 처음 입문하는 수험생일 경우 민법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공부 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민법 기본이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타 과목으로 접근할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으며 민법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타 과목을 접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차 과목의 문항 수 비중도 1차 시험 합격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특히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많이 소요되는 과목이므로 절대 소홀이해서는 안된다.

수험공부 하기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기출문제(5년) 출제경향 분석과 난이도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한다.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7회 ~21회 기출문제 민법총칙의 경우 민법일반, 권리일반,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권리변동 등 5단계로 나누어 볼때 어느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는지 기출문제 분석표를 잘 파악한다면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해야하는지 쉽게 알수가 있다. 민법 총칙의 경우 권리의 변동, 권리의 주체에서 매년 많은 문항수가 출제되고있다.

둘째, 합격자 합격수기도 빼 놓을 수 없다. 합격자 합격수기 중 본인과 공부 스타일이 비슷한 합격자의 공부 방법을 선택 하여 수험계획서를 면밀히 작성하여 90%만 실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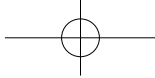
■ 2차시험(주관식)

2차 시험도 1차 시험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은 1차 과목과 중복되는 과목으로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객관식과 주관식 시험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많은 복습량이 필요하다.

2차 공부도 1차 공부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에 있어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공부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범답안을 내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서 단권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하며 모의시험으로 답안작성의 반복연습이 꾸준히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1차 시험은 독학으로도 열심히만 한다면 1차 합격이 가능하지만 2차 시험은 독학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차 공부는 개별스터디의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개별스터디 구성을 위해서는 주위 수험생을 많이 알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급변하는 시대와 같이 수험준비도 변해야 한다. 34년 전에는 시험 출제가 유력한 문제만 뽑아서 달달 외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출제경향이 변하여 기본서 전 분야를 정복하지 못한다면 합격의 영광은 바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성공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 이상적인 수험생활은?

◎ 겸손과 성실

자만과 게으름은 수험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적이다. 특히 강의를 들을 때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아야 하며, 강의내용을 마치 스폰지 처럼 빨아들여야 한다. 작은 물구멍 하나가 전체의 독을 무너뜨리듯 단 하루라도 게으름 피다가 수험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 1년 만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합격은 그만큼 힘들어진다.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를 할 때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다' 내지 '어렵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해야 한다.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경쟁자인 남들도 똑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버티기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절박한 심정으로 1년간의 수험생활을 버티어 내야 한다.

◎ 체력관리 및 아침시간의 활용

체력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여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 습관을 들이며, 단 10분 만이라도 걷기 내지 뛰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지기를 권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족한 과목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정신이 맑은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 단순화된 수험생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3명 내지 4명 정도의 개별스터디를 통한 철저한 수험생활 관리와 절박한 심정으로 합격이라는 한 목표를 향한 수험생들의 일관된 자세, 둘째 열정적이고 성실한 강사의 가르침, 셋째 강의실 및 자습실 환경 등 안정적인 학습환경의 뒷받침이 이루어져 만들어 내는 공동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다른 생활은 잠시 다 접어두고 오직 합격이라는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일관되게 생활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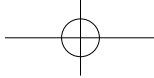
그리고 개별스터디 구성은 학원가에서 같이 공부하는 수험생 중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터디팀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가족과 같은 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02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헌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헌법총론	헌법의 의의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			1
	헌법의 보장							
	헌정사	1						1
	국가 형태와 구성요소					1		1
	헌법의 기본원리	1	3		2	1	7	
	헌법의 기본제도	3	2	1	1	1	8	
기본권론	기본권총론				1		1	2
	포괄적 기본권			1		3	1	5
	자유권적 기본권	4	7	5	3	7	26	
	사회적 기본권	1		1	3		5	
	청구권적 기본권			2		1	1	4
	참정권적 기본권	1			1	3		5
	국민의 기본의무							
통치구조론	통치구조의 원리와 형태							
	국회	3	1	1	1	2	8	
	대통령	1	1	1	2	1	6	
	행정부	1		2	1	1	5	
	법원	1		1	1	1	4	
	헌법재판소	3	2	5	1	1	12	
종합문제	1					1	2	
총 계		20	20	20	20	20	100	



■ 제21회 시험 출제경향 및 총평

1. 출제비중

총론에서 2문항(기본원리, 정당제도), 기본권론에서 11문항(자유권에서 7문항), 통치구조론에서 7문항이 출제되어, 예전보다 총론의 비중이 줄고 기본권부분에서 다소 높은 출제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조문문항

부속법령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은 대신에, 헌법조문에 대해서는 박스형 문제(3문항)로 치밀하게 물어 보았습니다. 지엽적인 부속법령으로 범위를 넓히지 않는 대신 헌법 조문을 좀더 꼼꼼하게 암기할 것을 요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로 보입니다.

3. 판례문항

헌법재판소 판례를 묻는 문제에서 단순히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떠나서 보호영역이나 결정례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많아 작년에도 이어, 올해도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4. 작년대비 난이도

작년시험에서도 헌법시험이 쉽지는 않은 편이어서 오답문항이 5개 이하인 경우 나름대로 선방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박스형 단순 암기 문제는 오답률이 높은 점, 소위 그저 주는 문제가 없어 지문을 일일이 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작년보다 쉬웠다고는 할 수 없고 1~2개 정도는 난이도가 더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내용분석 및 학습방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법조문입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동안 항상 헌법전을 반복해서 읽으셔야 하며, 헌법전의 명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시험 직전까지 조문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경우 기본서와 더불어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등을 함께 활용하여 실전형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무엇보다 객관식 시험은 시험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목 수가 많은 법무사 시험에서 헌법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있고, 법무사 시험에서의 헌법은 소위 전략과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미뤄두다가는 다른 주요과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순수한 이론이나 부속법령의 출제비중은 낮고, 현재판례의 비중이 높습니다. 가끔 이른바 만점 방지용으로 지엽적인 부속법령의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를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는 강약조절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시간에 커버할 수 있는 분량을 지혜롭게 잘 정리하셔서 노력한 만큼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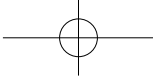
헌법 이재영 법무사

03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상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총칙 상행위법	상인		1		1			2
	상업사용인				1	1	1	3
	상호		1		1		1	3
	상업등기		1		1	1	1	4
	영업양도			1	1		1	3
	상행위법 총칙		1	1	3	1	1	7
	상행위법 각칙		1	2	2	4	1	10
회사법	회사법 통칙			2				2
	합병합자회사 등		2	2	1	1		6
	주식회사		10	10	12	11	16	59
어음· 수표법	총론		1	2	1	3	1	8
	환어음		3	1	1	2	2	9
	약속어음			1				1
	수표		1	1	1	1	1	5
통치구조론	보험계약		3	2	2	1	2	10
	손해보험		1	1	1	2	1	6
	인보험							
해상법	해상기업조직		2	1	1	1		5
	해상운송		1				1	2
	해상기업위험		1	2		1		4
	항공운송			1				1
총 계			30	30	30	30	30	150



■ 제2회 시험 출제경향 및 총평

제2회 법무사 제차 상법시험의 경우, 회사법 16문제, 총칙·상행위 6문제, 어음·수표법 4문제, 보험·해상법 4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그 중에서 판례의 결론을 정답으로 하는 문제가 10문제, 조문문제가 20문제 정도가 각각 출제되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년과 비슷했다 할 수 있으나,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예년에 비해서 최소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는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신경향 문제인 박스형태의 문제가 3문항이나 출제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어려워졌고 판례의 결론을 묻는 문제도 평소에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판례뿐만 아니라 평소 주의 깊게 공부하지 아니하는 개별판례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평소에 시험출제 가능한 주요논점과 관련한 중요판례와 중요조문을 꼼꼼하게 공부한 수험생은 평소와 큰 차이가 없는 점수를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 향후 시험준비 방향

평소 수업시간에 누차 강조했지만 과목수가 많은 법무사 시험의 특성상 모든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않다 하겠다. 따라서 과목마다 최대한 공부범위를 줄여 합격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범위를 정하여 빠른 반복학습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합격의 지름길이다 할 것이다.

상법도 그 많은 분량을 빠짐없이 자세히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할 것이고,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 자신 있는 부분에 더 노력을 집중하여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분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인 공부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관련하여 어느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출제문항 수가 그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이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제문항수가 많은 회사법과 총칙·상행위에서 일단은 자신이 목표하는 대부분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평소에 충실히 그 부분을 공부하고, 많은 수험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어음·수표법과 보험·해상법에서는 나머지 최소한의 점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원하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법무사 상법시험은 대부분의 지문이 판례와 조문문제로 출제된다. 이에 출제 가능한 주요 판례와 조문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총칙·상행위는 주요조문과 이와 관련된 개별판례, 회사법은 주요조문과 판례내용, 어음(수표)법은 주요조문을 확실히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상 및 항공운송은 출제예상조문을 확실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 보험법의 경우에는 최근에 개별판례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점에 비추어 조문과 함께 주요판례도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상법강의를 통하여 스스로 공부할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 그 안에서는 언급 되는 주요 조문과 판례들을 철저히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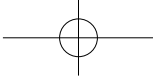
상법 정태덕 교수

04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민법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민법총칙	민법일반							0
	권리일반		1	1				2
	권리의 주체		5	3	1	2		11
	권리의 객체							0
	권리의 변동		4	5	8	4	6	27
물권법	물권의 총론		2	1	1	1		5
	점유권				1	1	1	3
	소유권		4	3	3	3	4	17
	용익물권		2	2	1	3	1	9
	담보물권		1	2	2	2	3	10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1	1		2
	채권의 효력		3	3	3	2	2	13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1	1	1	1	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			2		4
	채권의 소멸		3	2	2	2	3	12
채권각론	계약총론		2	3	2	5	2	14
	계약각론		2	7	5	6	7	27
	사무관리							0
	부당이득		1	1	1	1	1	5
	불법행위		2	1	2	1	2	8
친족법		3	3	4	3	3	16	
상속법						2	2	
총 계			40	40	40	40	40	160



■ 제21회 민법 총평

금년 제21회 법무사 민법 시험은 예년보다는 1~2개 정도는 분명 어려웠다는 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특히 최신판례 강의)를 충분히 듣고 조문판례집을 충실하게 본 수험생들에게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 제21회 법무사 민법 시험을 분석해보면 분야별로는 민법총칙편에서 6문제, 물권법편에서 9문제, 채권법편에서 18문제, 친족상속법편에서 5문제, 종합문제 2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조문이 7문제, 판례가 36문제(특히 최신판례문제 4문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 40문제 전부 출제되었다. 주목할만한 것은 그 난이도를 높이려는 의도아래 수험서에 잘 나오지 않는 1980년대와 1990년 초반의 지엽적인 판례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민법기본이론을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36문제는 조문판례집 등 수험서에도 전부 수록되어 있는 전형적인 조문과 판례 문제이었다.

앞으로 내년 시험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본이론을 동반한 조문과 판례를 완벽하게 숙지함은 물론이고 최신판례를 반드시 습득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수험생분들에게 모두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민법 학습방향

◎ 전체 체계의 중요성

민법은 그 전체의 개관을 통하여 미리 그 뼈대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민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체의 체계를 잡고 있어야만 2차 시험까지 커버할 수 있으며, 이는 이론수업을 진행할 때 매 단원마다 개관을 이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전체 개관의 학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문의 중요성

법학은 해석론이라는 시각에서 법조문이 매우 중요하므로, 법조문 내용을 꼼꼼히 체크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조문의 내용을 친숙하게 하여야 한다. 또는 조문 상호간의 연결이나 조문의 위치도 대단히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체크도 하여야 한다.

◎ 판례의 중요성

민법은 대법원 판례가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므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 그 결론 부분들을 완벽히 암기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판례 및 특히 최신 판례는 기본이론시간이나 문제풀이 내지 마무리 특강 등에서 정확히 정리할 수 있다.

◎ 마무리 정리의 중요성

평소에 습득했던 이론들을 시험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몇 회독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막바지에 회독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론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제풀이 및 마무리 요약정리를 할 때에는 핵심이론 요약정리 및 판례와 조문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 기출문제 등 문제풀이의 중요성

법원관련 시험은 그 기출문제의 호환성이 있으므로 기출문제의 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또한 박스형이나 사례형의 문제처럼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습득함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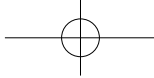
민법 이준현 박사

05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총설	가족관계등록제도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1	1		1	3	
	등록사무의 감독	1					1	
	등록부 · 폐쇄등록부			1			1	
	각종 부책과 서류	1					1	
	등록부등의 공개	1	1	2	1	1	6	
총칙	신고	신고	2	1	1	1	6	
		직권 정정 · 기록			1		1	
		접수(사건본인 등신분확인)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1				1
		등록부의 기록 · 정정, 폐쇄	1					1
등록사무 처리절차	출생신고	2	1	1	1		5	
	인지신고		1	1		1	1	
	입양신고					1	1	
	친양자입양신고					1	1	
	혼인신고			1	1		2	
	이혼신고		1		1	1	3	
	친권에 관한 신고				1		1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사망신고			1	1		2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성 · 본변경신고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국제등록 사무	국제등록사무 총론	1	1			1	3
		국제등록사무 각론						
등록부의 정정					2	2		
가족관계 등록비송	국적취득자의 성 · 본 창설허가 개명허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법 제104조 · 법 제105조의 등록부정정허가		2		2		5	
		1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벌칙, 과태료				1		1		
총계		10	10	10	10	10	50	



■ 제2회 시험 총평

이번 시험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무난하게 출제되었으나, 오전 1교시 헌법, 상법, 민법 모두 어렵게 출제되어 맨 나중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풀었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실력대로 풀어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1문제(1책형 47번, 2책형 50번) 정도 정답지문을 찾기에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실제 득점을 보면,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는 수험생들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7~8개를 맞춘 득점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 결과 전년 대비 점수는 상승하였으나, 전년도에 어렵게 출제되어 전년 점수가 예년에 비해 낮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시험은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할 것입니다.

■ 향후 학습방향

가. 최근의 출제 경향 고려

법무사 제1차시험은 8과목이나 되고, 특히 최근에는 대부분의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1차시험 합격 cut-line이 60점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과 최근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볼 때, 기본에 충실하여 공부량을 줄이되 정확한 숙지를 위하여 단권화, 강약조절, 꾸준한 반복학습이 중요합니다.

나. 과목별 고른 공부 필요

실무에서는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지만, 법무사 제1차시험 8과목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배점은 5%에 해당합니다.

제1차시험 합격을 위하여는 배점이 큰 과목이거나 작은 과목이거나, 제2차시험 과목과 공통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불문하고 과목별 70점을 목표로 삼아, 과목별 고른 점수를 맞은 수험생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부지런히 모든 과목을 골고루 성실히 공부한 수험생이 합격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수험전략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지문을 소화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출제비중이 높은 조문과 예규를 집중 반복하여 숙지하면 수험준비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치러지고 문제는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으로 구성되므로, 적은 양을 공부하더라도 공부한 지문들을 정확히 알면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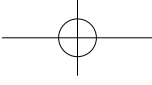
가족관계등록법 김지후 교수

06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민사집행법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편	장	절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제1편	집행기관			1			1	2	
	불복			1	1	1	1	4	
	집행비용			1		1		2	
	담보							0	
제2편	총설		4	4	5	5	4	22	
	집행보조		2	1	3	1	1	8	
	부동산에 집행	강제경매신청		2	1	2	3	3	11
		압류절차		2	5	4	4	8	23
		현금화절차		7	4	6	1	6	24
		배당절차		4	2	2	5	2	15
		경매취하			1		1		2
		임의경매		1		1			2
		형식적경매			1		1		2
	임차인		1					1	
	선박등			1		2	1	4	
	동산	유체동산		1	1	1	1	1	5
		채권		2	4	4	6	2	18
제3편	유체물인도							0	
	대체집행		1			1	1	3	
	간접강제						1	1	
	의사진술			1				1	
제4편	시설		3	1	3	1		8	
	신청과 심리			1				1	
	재판		1			1		2	
	채무자의 구제		1	3	2		2	8	
	집행		3	2	1		1	7	
통 계		35	35	35	35	35			



■ 제21회 시험 총평

1. 출제된 부분

제21회 법무사시험에서 민사집행법이 출제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총론에서는

민사집행에서의 불복에서 1문제, 집행기관에서 1문제가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장 총설에서는 강제집행의 요건에서 1문제, 개시요건에서 1문제, 집행의 정지, 취소에서 1문제, 강제집행에서의 구제 절차에서 1문제가 출제되었고,

제2장 집행보조절차에서는 1문제, 제3장 부동산 집행에서는 19문제, 제4장 선박 등 집행에서 1문제, 제5장 동산에서는 유체동산에서는 1문제, 채권부분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3편 비금전채권의 집행에서는 2문제가

제4편 보전처분에서는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출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다만 예전에 비해 채권편과 보전처분 문제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대신 부동산 집행 부분이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2. 지문 분석

총 175개 지문의 출제부분은 조문에서 35개, 판례와 예규에서 105개, 내용을 묻는 것이 35개 지문으로 분석되는데, 조문 판례 비중 약 80%에 이른 것은 지난해와 비슷한 경향이지만 조문문제는 줄고 판례가 늘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3. 문제의 난이도 분석

민사집행법의 특징은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는 쉽게 느껴지지만 막상 답안 채점을 하게 되면 많이 틀리는 대표적인 과목입니다. 이번 시험문제 또한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주었을 것입니다. 판례부분도 예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민사집행법의 난이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웠다고 보며, 지난해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 시험도 작년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봅니다. 최우수자는 30개 정도를 우수자는 25개 정도를 보통은 절반 정도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으리라 보며 역시 지난해처럼 과락자가 응시자의 절반이상이 되리라 봅니다.

■ 향후 학습방향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이 출제될 것을 대비하여 판례정리가 잘된 기본서를 선택하여 기본서를 반복하여 정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년에 1차 합격가능한 점수대에 있는 분들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2차 준비에 전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간 흘린 땀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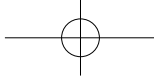
민사집행법 배병한 법무사

07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최근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상업등기	총론		5		3	2	5	15	
	상호			1	1	1		3	
	무능력자							0	
	지배인			1				1	
	합자조합							0	
	합명회사							0	
	합자회사							0	
	주식회사		3	6	6	7	5	27	
	유한회사					1		1	
	외국회사					1		1	
	유한책임회사			1	1			2	
	상업등기 종합문제, 기타		2	3	1	2	1	9	
	비송사건	총칙		1	1	2		1	5
		민사비송	법인에 관한 사건			1			
신탁에 관한 사건							1		1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0
보존·공탁·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0
부부재산의 약정									0
민사비송 종합문제			1	1				2	
상사비송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		1
		사채에 관한 사건							0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0
		상사비송 종합문제		1		1	1		3
법인등기		1				1	2		
과태료 사건		1					1		
총 계			15	15	15	15	15	75	



■ 제2회 시험 총평

1. 지문구성 상의 특징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지문들을 동일하게 출제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살려 변형되거나 응용을 요하는 지문들이 상당 수 포함되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단순 암기하였던 수험생들은 지문이 낯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서의 내용과 각 선례, 예규의 의미를 잘 숙지하여 놓은 수험생이라면 2~3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답을 찾기 어렵지 않게 출제된 특징이 있다.

2. 난이도 분석

문제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는 예년에 준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다수 포함되고 전반적으로 한번은 생각해 볼 문제들이 많아 시간적 압박을 느낀 수험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학습방향

상업등기법(및 비송사건절차법)은 법무사 업무의 실무적 비중이 적지 않아 내용이 상당히 방대함에 비하여, 시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수험생들이 준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실체법인 민법의 법인편, 상법의 상인 및 회사편의 이해도와 맞물려 상업·법인등기 실력이 함께 향상되는 면이 있고, 최근 출제경향 또한 개념의 유기적인 정리·이해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1단계 기본 강의시에는 실체법들과의 연계에 주의하면서 조금 깊이 있게 준비하여 확실한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 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기출지문과 최신 예규·선례를 중심으로 기본서를 축약/정리하면 모두 고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기초가 튼튼하면 회가 거듭할수록 확실한 전략과목이 되는 반면, 처음에 체계가 흔들리면 끝까지 암기할 양이 줄지 않는 과목이니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출제경향으로 보면 기출문제 지문을 그대로 반복하기 보다는 동일 개념을 묻되 지문을 달리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를 한 수험생들에게는 공부할 때와 시험장에서의 난이도에 큰 차이를 느끼지 않으나, 기본 개념과 판례·예규·선례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기출지문의 암기에 치중한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갑자기 난이도가 상승한 느낌을 받아 당황하고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출지문 그대로를 암기하기 보다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판례, 예규나 선례에 대하여는 그 제정 배경이 되는 취지를 기본서를 통해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이 암기의 양도 줄이고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학습전략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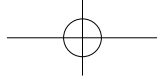
상업등기법 김경중 법무사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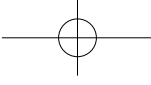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부동산등기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부동산등기법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1장	총칙	등기할 사항	2		1		1	4
		등기의 효력	1					1
		중복등기	1	1				2
2장	등기소외등기관	등기소		1				1
3장	등기에 관한 장부	등기부		1				1
		공개제도					1	1
4장	등기신청인	일반원칙(미성년자)		1		2		3
		등기신청의무					1	1
		등기당사자능력			1			1
		대리인			1			1
		법인	1					1
		법인 아닌 사단		1	1		1	3
		포괄승계인					1	1
		대위등기			1	1		2
외국인, 재외국민	1	1		1	1	4		
5장	신청정보		2	1			3	
6장	첨부정보	등기원인증서		1	1	1	1	4
		등기필정보 등					1	1
		허가동의승낙서	2	1	1	2	3	9
		주소증명정보				1	1	2
		인감증명	1		2	1	1	5
기타	1	1			1	3		
7장	판결등기	1	1	1	1	1	5	
8장	전자신청	1	1				2	
9장	등기실행 절차	보정/취하	1	1		1	1	4
		각하			1	1	1	3
		완료이후절차		1	1			2
10장	이의절차		1	1		1	3	
총론 (합계)			13	16	14	12	18	73



부동산등기법			17회 (2011년)	18회 (2012년)	19회 (2013년)	20회 (2014년)	21회 (2015년)	계
11장	소유권	소유권보존	2	1	1	1	1	6
		소유권이전	4	2	2	3	1	12
		공동소유			1	1		2
		환매특약 등		1				1
		금지사항등기 등					1	1
12장	용익권							
13장	담보권							
14장	표제부	부동산표시변경	1	1	1		2	5
15장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변경등기			1	1		2
		경정등기	1		1			2
		말소등기	1		2	1		4
		회복등기	1			1		2
16장	가등기							
17장	처분제한 등기	가압류	1			1		2
		가처분		1	1		1	3
		경매, 공매	1	1	1	2	1	6
		기타				1	1	2
18장	구분건물							
19장	신탁	신탁	1				1	2
20장	기타 등기	환지등기	1	1				2
		채무자회생		1		1		2
각론 (합계)			17	14	16	18	12	77



08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부동산등기법

■ 제2회 시험 총평

2015년 제2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등기법 부분의 출제난이도가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기본서중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을 당황하게 하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2016년도에는 2015년도보다는 평이하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에 총론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30문제중 18문제) 출제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어느 분야에서 많이 출제되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널리 출제되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출제가 빈번했던 부분을 살펴 보면, 총론편 [1장]에서 등기능력여부, [4장]에서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외국인/재외국민등기절차, [6장]에서 등기원인증서, 각종 허가서, 인감증명, [6장]의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9장]에서 보정/취하, [10장]의 이의신청절차 관련 문제, 각론편 [11장]에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12장]의 용익권등기, [13장]의 담보권등기, 14장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 16장의 [가등기], 17장의 [경매]관련 부분을 들 수 있다.

■ 학습방향

◎ 전체 체계(목차)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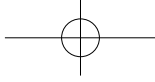
부동산등기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은 부동산등기법 체계를 목차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어야만 자기가 공부하는 부분이 등기법의 복잡한 체계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등기법 공부가 좀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더군다나 부동산등기법은 2차 시험에서 논술형태로도 시험을 보는 것이므로, 수험생은 등기법을 공부할 때에 수시로 목차를 확인하여야 한다.

◎ 기본서의 중요성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예규나 선례가 통째로 인용되면서 지문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등기예규나 선례를 전부 자기 것으로 내면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보는 교실에서 등기예규나 선례의 긴 문장구조를 쉽게 파악하여 틀린 지문을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시험장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등기예규와 선례를 숙지하는 길고 긴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등기법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기본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요약서의 중요성

등기법 전반에 걸쳐서 출제되는 것이 최근의 시험 경향이지만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요약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서와 목차집을 가지고 등기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요약서[Upgrade 부동산등기법]를 가지고 핵심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위 요약서에는 그 동안 2번의 출제문제를 모두 통계화하여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부분을 언급하였으므로 등기법 1차 시험에서 고득점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Judicial Scrivener 「**학습전략**」

◎ **객관식 문제풀이의 중요성**

법무사시험, 법원공무원 채용/승진 시험은 기출 문제가 서로 유사한 점이 있으므로 그 동안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OX 문제 등을 교과서 진도에 맞추어 풀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유석주법무사의 네이버밴드에서는 위 기본서목차, 법원기출문제, OX문제를 제공한다는 점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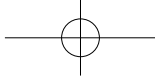
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09

과목별 기출문제 분석 및 학습방법론 - 공탁법

■ 최근 5년간 기출문제 분석

단원	실시횟수	14회 (2008년)	15회 (2009년)	16회 (2010년)	17회 (2011년)	18회 (2012년)	계
공탁의 법적성질							0
공탁의 종류							0
공탁소 및 관할		1	1				2
공탁당사자		1		1			2
공탁물							0
공탁신청절차		5	4	4	1	1	15
변제공탁			3	3	3	4	13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1	2	2	3	1	9
보증공탁			1		1	2	4
집행공탁		3	2	4	3	3	15
혼합공탁				1	1	2	4
대공탁, 부속공탁				1			1
공탁서 정정			1	1	1	1	4
지급청구권의 변동		1	1		1	1	4
공탁관의 사유신고		1	1			1	3
소멸시효					1	1	2
공탁물지급절차		6	3	1	5	1	16
공탁관 관련절차		1	1	1		1	4
전자공탁				1		1	2
총계		20	20	20	20	20	100



■ 제2회 시험 총평

1. 출제된 부분

제2회 법무사시험에서 공탁법이 출제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합공탁에서 2문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1문제, 전자공탁 1문제, 변제공탁 3문제, 집행공탁 3문제, 담보공탁 2문제, 지급청구절차에서 2문제, 사유신고에서 1문제, 지급청구권의 변동에서 1문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에서 1문제, 공탁서 정정에서 1문제, 소멸시효에서 1문제, 공탁물 납입에서 1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출제범위와 비슷합니다.

2. 지문 분석

대부분의 지문은 공탁에 관한 판례, 예규, 선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또한 그간의 출제경향과 비슷합니다.

3. 난이도 분석

새로운 지문 8개 정도 이외에는 기출된 지문이나 그에 대한 변형지문입니다. 고득점자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지난해보다는 1문제~1.5문제 정도가 쉬웠다고 보여집니다.

4. 2016년도 대비 공부 방향

기본서에 소개된 판례나 선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예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공탁법 배병한 법무사